



## 우리협회 비전21 TF, 워크숍 개최

최근 새로운 도서관 문화 환경 속에서 우리 협회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진과 협회 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그동안의 연구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한 워크숍이 2007년 1월 11일(목)부터 12일(금)까지 양일간 대전 유성에 있는 흥인호텔 댄디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해 말까지 각 연구자들이 작성한 협회 중장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협회 중장기 발전방안을 작성하게 된 배경과 목적, 그리고 주요한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 5 page

## 미국 유에스 뉴스 & 월드 리포트, 올해의 유망 직종 발표 -도서관 사서, 유망직종에 선정-

미국 유에스 뉴스 & 월드 리포트는 최근 '올해 미국의 유망 직종' 리스트를 발표하였는데 그 가운데 도서관 사서가 유망직의 하나로 선정했다.

이 잡지는 해당 직종의 급여, 사회적 지위와 함께 수련기간, 내부 경쟁, 삶의 질도 감안하고, 여기에 최근 경제 흐름과 직업 트렌드 등을 고려해 25개 유망 직종을 선정했다.

사서는 디지털 시대의 정보 홍수 속에서 갈수록 중요해질 '정보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높은 점수를 줬다. 잡지는 직업 선택에도 '웰빙'이 강조되는 경향을 감안해 "경쟁이 심하지 않고 근무 환경이 쾌적한 것도 사서직의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의사, 검안사, 의료보조인, 공무원, 교육종사자, 경영컨설턴트, 성직자 등이 유망직종으로 뽑혔다.

▶ 14 page

## 협회소식

### 우리협회 비전21 TF, 워크숍 개최



우리협회 비전 21 TF 워크숍이 2007년 1월 11일(목)부터 12일(금)까지 양일간 대전 유성에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연구진 5명 전원(윤희운 대구대 교수, 장덕현 부산대 교수, 김기세 배재대 과장, 김지봉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과장, 이용훈 협회 기획부장)과 사무국의 이경구 사무총장, 유태형 과장, 신재은 과장, 강원영 직원이 참석했다. 첫날 저녁에는 한상완 협회장과 이현주 총무부장이 워크숍장을 찾아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하고 활동을 격려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협회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 각 연구자가 제안한 협회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효성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1월 31일(수)까지 최종 수정한 방안을 제출하고, 위원장(윤희운 교수)이 확인, 조정한 후에 협회 사무국에 제출기로 했다. 연구진에서 최종 연구결과를 사무국에 제출해 오면 협회 사무국에서는 이를 근거로 회원과 도서관계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우리

협회의 중장기 비전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문의 : 유태형 관리지원과장, ☎ 02-535-4868]

### 롯데마트·한국 P&G·비룡소 공동주관 우리협회 후원, 지역 도서관에 5,000여권의 도서 기증

우리협회가 후원하고 롯데마트·한국 P&G·비룡소가 공동 주관한 ‘지역 도서관 도서기증운동’이 2006년 12월 15일(금)부터 24일(일)까지 10일간 전국 롯데마크 매장에서 실시됐다.

이번 행사는 롯데마크 전국 48개 매장에서 한국 P&G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사랑의 지역 사회 기증카드’를 증정하고 총 20,000개의 카드를 모아 각 지역도서관에 기증할 도서를 수집했다. 이에 1월 26일(금)부터 29일(월)까지 롯데마트 주변 각 지역 공공도서관 48개관에 각 100여권씩 총 5,000여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 2006년도 하반기 “책 읽는 가족” 선정



우리 협회가 2002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정 독서운동 캠페인 : 책 읽는 가족’과 관련 2006년도 하반기에는 총 180개 도서관에서 278가족을 선정하였다.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된 가족에게는 한국도서관협회장과 각 도서관의 관장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한다.

## 전문위원회

### 어린이청소년봉사위원회, 2006년 제3차 회의

- 일시 : 2006년 12월 21일(목) 10:00~12:00
- 장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제2독서토론실
- 참석 : 박미영(위원장), 송영숙, 최진봉(이상 위원), 라미나(노원정  
보도서관), 강원영(사무국)
- 안건 : 1) 어린이·청소년 우수 프로그램 사례 추천 및 기준안  
제시에 따른 운영 협의  
2) 어린이 전문 사서 연수 프로그램 개발  
3) 어린이 수상작 추천  
4) 2006년 결과보고  
5) 2007년 위원회 운영 계획
- 회의내용
  - 보고사항 설명(위원장)
  - (1) 어린이·청소년 우수 프로그램 사례 추천 및 기준안 제시
    -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독서 프로그램 공모
    - 가족독서프로그램 공모 심사기준안
      - 지속성, 모든 세대별의 참여도(세대구분, 남녀노소 관계  
없이), 만족도(참여자 및 개최자 측 사진첨부), 독서 자료  
와의 관련성, 기타 홍보
      - 주최는 한국도서관협회 어린이청소년봉사위원회, 후원  
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 하여 공모 진행 바람,  
더불어 협회에서 예산지원 바람.
  - (2) 어린이 전문 사서 연수 프로그램 개발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비슷하니 연계하여 같이 실시하기 바람.
    - 주최는 한국도서관협회 어린이청소년봉사위원회, 후원  
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 하여 진행 바람.
    - 지금 실시중인 어린이 사서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어린이도서관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일본어린이  
도서관 사서 연수 프로그램 자료, 기적의 도서관 사서 연

수 프로그램 자료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조합하여 수정할  
필요 있음.

#### (3) 린드그렌 아동문학상 추천

· 작품에 대한 추천 필요, 우리나라 문학 표현을 잘 나타낼  
번역이 필요.

-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창비출판사, 유은실 작가)

## 국내 소식

### 「독서문화진흥법」,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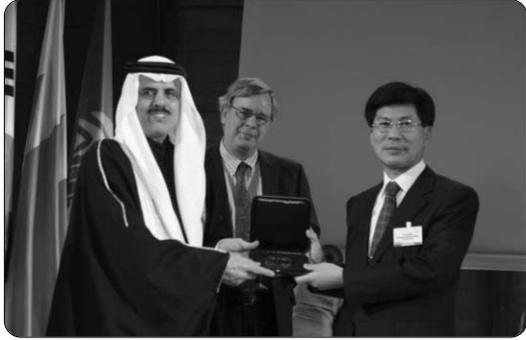
「독서문화진흥법」이 2006년 11월 30일 제17대  
국회에서 가결되어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  
8100호로 공포되었다.

「독서문화진흥법」은 기존의 「도서관 및 독서진  
흥법」중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내용을 분리·구  
체화하여 별개의 법률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  
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독  
서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그 밖  
에 법률은 지역·학교 및 직장에서의 독서 진흥  
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  
고 있다.

이 법은 「도서관법」과 같이 2007년 4월 5일부  
터 시행한다.

[관련내용 도서관문화 2007년 1월호 4쪽 참조, 독서문화진흥  
법 전문은 본지 61~63쪽 참조]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1회 유네스코-바레인국왕 교육정보화상 수상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공동으로 1월 12일(금)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거행된 제1회 UNESCO-바레인국왕 교육정보화상을 수상했다.

UNESCO-바레인국왕상은 2005년 유네스코가 제정한 교육정보화 분야 상으로 세계 각국의 교육현장에서 ICT 활용에 기여한 국가나 기관 또는 개인에게 수여된다.

이번 유네스코 교육정보화상에는 전 세계 30개국에서 35개 기관이 응모하여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핀란드 Kemi-Torino대학과 함께 수상했다.

유네스코는 한국의 사이버정확습 등 e-러닝 서비스 프로젝트가 정부, 입법부, 출연기관,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간의 공동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국가교육모델로서, UNESCO의 새천년목표인 “모든 이를 위한 교육” 목표를 달성시키고 나아가 교육정보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수상식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원부 이종서 차관이 참석했다.

[문의 :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정책과 ☎ 02-2100-6548]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활성화 유공자에  
문화관광부장관상 표창 및 로고 제작



국립중앙도서관은 2006년 12월 21일(목) 국립중앙도서관 6층 회의실에서 작은도서관 조성 및 범국민확산운동 유공자에 대한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 상은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 및 서비스 향상과 문화불균형 해소에 기여한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원봉사자, 지자체 관계 공무원과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한 공공도서관에 주어졌다. 수상자는 단체 중랑구립정보도서관(서울특별시), 부전도서관(부산광역시)과 개인 23명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올해 처음으로 이 상을 시상하고 앞으로 매년 작은도서관 유공자를 발굴, 포상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비전 등을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상징·로고(CI)를 개발해 발표했다. 이 로고는 작은도서관의 현판, 안내표지판 등에 활용하여 국민들이 작은도서관을 손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KORCIS) 구축 완료 보고회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2006년 12월 22일(금) 전국에 산재한 고서 고문서 등 고전적의 소장기관 및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www.nl.go.kr/korcis](http://www.nl.go.kr/korcis)) 구축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구축 사업은 2005년도부터 우리나라 고서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활용 및 연구를 위한 종합목록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고서목록DB를 통합하고 서비스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의 지식정보자원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재 수록된 데이터는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 전국 주요 고전적 소장기관 41개 기관의 고전적 목록DB 41만종 및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전적 원문DB 3만5천종 등이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국내외 소재 한국 고전적에 대한 목록, 해제, 원문, 목차 등 표준화된 고서DB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약 100만종 223만여 책으로 추정되는 한국고전적 중 구축 완료된 41만 종을 제외한 약 59만 종에 대해서는 향후 2011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책 읽는 놀이터' 운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공동으로 개발한 연극놀이 프로그램 '책 읽는 놀이터' 총 7강좌를 2007년 1월 10일(수)부터 1월 31일(수)까지 매주 화, 수요일에 운영한다.

'책 읽는 놀이터'는 독서 후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연극놀이를 통해 독서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자연스럽게 유발시켜 나갈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으로 6,7세 아동 대상 유아반과 초등학교 1,2학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반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 ISBN, 2007년도부터 13자리로 확대

2007년 1월 1일(월)부터 ISBN은 전세계적으로 13자리를 사용하게 됐다. 한국문화번호센터에서도 2007년 1월 1일(월)부터 발행자에 13자리 ISBN을 사용토록 번호를 배정하고 있다.

1970년대 ISBN시스템이 도입된 시점에 예상했던 것보다 인쇄출판물 및 전자출판물 등 출판량이 급증해 기존 10자리 ISBN으로는 한계에 달하여 추가번호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국제 ISBN관리기구는 2004년 11월 국제회의를 통해 2007년 1월 1일(월)부터 전세계적으로 ISBN 13자리로 확장기로 결정·공표하였고, ISBN 관련 국제규격(ISO2108) 및 한국산업규격(KSX6004)도 모두 13자리로 개정됐다.

바뀌게 된 번호구조는 ISBN 10자리 앞에 접두부 978을 추가하고 체크기호는 재계산한다.

[문의 : [www.nl.go.kr/isbn\\_issn/isbn/modi\\_thirteen.php](http://www.nl.go.kr/isbn_issn/isbn/modi_thirteen.php)]

### ■ 예시

- ISBN-10자리 : 89-7383-052-X
- ISBN-13자리 : 978-89-7383-052-7

---

## 서울 종로·송파구, 책 읽는 도시 조성

---

서울시 종로구와 송파구가 각각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종로구는 주민과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지역 학교에 책을 구입해 기증하고 2006년 12월 20일(수)과 22일(금) 각각 도서기증식을 가졌다.

20일(수)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와 서울효제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도서기증식을 갖고 두 학교에 각각 463권과 588권을 전달했다.

22일(금)에는 종로구와 관학교류협력을 맺고 있는 성균관대학교가 종로주민들을 위해 인문도서 1,128권을 기증했다. 이 책은 19동 새마을문고와 구청 자료실에 비치해 활용한다.

송파구는 2006년 12월 20일(수)부터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지하 2층 틈새공간에 ‘책 나눔터’를 마련해 운영한다. 이 공간은 체육문화회관 회원이 기증한 책을 모아 회원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책 나눔터는 지역주민이 직접 아침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다.

---

## 평택시립안중도서관, 자원봉사자와 가족이 함께 하는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행사 개최

---

경기 평택시립안중도서관은 1월 5일(금), 6일(토) 양일간 자원봉사활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하는 ‘도서관에서의 하룻밤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06년 10월부터 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주부독서모임 회원과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어린이들이 도서관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함께 도서관을 둘러보고, 지난

12월에 개관한 우주체험관 관람과 연만들기, 시청각실에서의 영화 감상, 자유로운 독서 시간을 가졌다.

---

## 광주북구일곡도서관, ‘황금 복돼지전’ 열어

---

광주북구일곡도서관은 2007년 정해년을 맞아 1월 11일(목)까지 도서관 로비에서 10일간 ‘정해년 황금복돼지전’을 열었다.

이번 테마전시회는 황금돼지 설화이야기와 돼지모양 이모티콘, 황금돼지해라 부르는 까닭, 돼지해 일어나는 임신 봄에 대한 내용, 내년 소망을 적는 코너, 이쁜 돼지모양 설치물 등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황금복돼지에 관한 내용을 전시했다.

이외에도 올해는 60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돼지해라는 속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황금돼지해에 태어난 아기는 재물운이 있고 평생 편하게 산다’는 주장과 함께 2006년 쌍춘년 결혼열풍에 이어 2007년에는 황금돼지 베이비붐이 일고 있는 내용들도 담았다.

---

## 대구시 교육청·대구시, 북스타트 운동 전개

---

대구시 교육청은 2월부터 대구시와 공동으로 북스타트 운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1월부터 대구 각 공공도서관 내에 영·유아 시설을 새로 짓거나 일부 개조해 아기와 부모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대구에서 태어난 만2세 미만 영·유아 2만명을 대상으로 출산이나 예방접종 때 보건소, 병·의원에서 그림책과 도서관 이용 안내서, 책가방을 선물한다.

대구 달서구청도 2007년 2월부터 북스타트 운동을 시작할 계획이어서 달서구에서 새로 태어나는

아기에게 그림책 2권과 독서 가이드북, 아기용 손수건 등이 담긴 북스타트 꾸러미를 보건소 예방접종 때 선물하게 된다.

## 공공도서관 경남지역협의회, 2006년 공공도서관 직무연수 개최

공공도서관 경남지역협의회는 사서 현장 업무능력 및 자질을 향상하고 도서관 정보교환을 위해 2006년 12월 14일(목)과 15일(금) 경남도학생교육원에서 2006년 공공도서관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도내 공공도서관 사서직 54명이 참여해 현장실무 위주 연수를 통해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 ■ 프로그램

- 프리젠테이션의 이론과 실제 / 김동수(경남교육과학연구원)
- 독서치료 / 김수경(부산대학교 강사)
- 기획실무 / 김광현(도교육청 평생학습지원담당 사무관)
- 마음수련 / 이인범(마산마음수련원장)

## 경상대학교도서관 문천각, 지역 고문서 기증 활발

고문헌 전문도서관인 경상대학교도서관 문천각에 최근 지역 각 문중에서 보관하던 고문헌의 기증이 계속되고 있다.

2006년 11월에는 경남 산청군 신안면 권성근(전 신화직물 회장)씨가 서주정사에 보관해 오던 고서 162권과 오동나무 고서 보관함 4대를 문천각에 기증했다. 기증된 문헌은 기증자의 조부인 정재 권운현 선생이 소장했던 자료들로 「명호선생문집」, 「서주유고」 등 경남지역 유학자들의 문집이 대거 포함됐다.

또한 2006년 12월에는 지난 2004년 '물천서당'

에 소장하고 있던 고서 700여권, 고문서 1천700여점, 책판 329점(경상남도 유형문화재 165호)을 세 차례에 걸쳐 기증한 산청군 신등면 김포환씨가 고문서 48점을 추가 기증했다. 여기에는 기증자의 증조부 물천 김진호 선생과 관련된 각종 호구단자와 면우곽종석의 친필 만장 등이 포함됐다.

또한 2005년 고문서 3천 여점과 박효근 효행 관련 고문서 18점(경상남도 문화재자료 350호)을 기증했던 박상호씨도 고성군 개천면 청광리 일명 '고성 박진사택 고가'에 소장돼 있던 고문서 300여점을 문천각에 기증했다.

## 영남대학교병원 의학도서관, '독서 문화 동아리' 발족

영남대학교병원 의학도서관 교직원들이 모여 '독서 문화 동아리'를 만들고 1월 5일(금)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독서 문화 동아리'는 독서에 이은 토론을 기본으로 월 1회 정도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영화, 공연 감상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상호간의 정보를 나눌 계획이다.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 회원으로 등록한 수는 40여 명으로 이 가운데는 전문 의료진인 교수 5명과 간호, 의료기사, 약제, 사무, 기술직 등 전 직종에 걸쳐 고루 참석하였다.

## 진해기적의도서관 개관 3돌 맞아 다양한 행사 개최

진해기적의도서관이 개관 3돌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2006년 12월 22일(금) 학부모와 학생 등 100여명을 초청해 기념식과 함께 이재복 아동문학가를 초빙해 강연회를 가졌다.

또한 23일(토)에는 초등학생들이 직접 책을 만들어 보는 ‘책 만들기 특강’을 비롯해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이야기’, ‘책정리 왕을 찾아라’, ‘책속 주인공에게 띄우는 편지’, ‘미래로 보내는 편지’, 24일(일)에는 초등사서 인형극 등의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홈페이지를 통해 조선 왕실도서관 문서콘텐츠 공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06년 12월 28일(목) 장서각의 국학 자료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완료 기념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이제 장서각 홈페이지(<http://yoksa.aks.ac.kr>)에서 조선 왕실이 소장했던 1만2205종의 고서와 4,557점의 고문서, 설화·민요·무가 등 22만7,300분에 이르는 녹취 자료 등 다양한 한국학 관련 자료를 접할 수 있다.

장서각은 1915년 창경궁내 일본식 건물로 건립되었으며 광복 이후 구왕궁사무처, 창경원사무소, 문화재관리국을 거쳐 1981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관됐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한국학 지식정보 활용방법과 디지털 지식정보를 연구와 강의 등에 실제로 활용한 사례를 모은 안내서 ‘네스토리언(Nestorian:네트론과 히스토리언의 합성어)의 지식 만들기’도 배포했다.

## 한국은행,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오픈



한국은행은 2006년 12월 27일(수) 은행 내에 운영해 오던 ‘한국은행 전자도서관’ (<http://dl.bok.or.kr>)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부 발간 자료의 원문DB만 일반 국민에게 제공해왔으나 이번 전자도서관의 오픈으로 1950년 한국은행 창립 이후 발간된 약 1만여권에 이르는 자료 원문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은행에 소장하고 있는 금융경제 분야의 전문도서를 비롯한 약 14만권의 도서, 600여종의 정기간행물을 검색·열람할 수 있게 했으며 자체 제작한 130여건의 경제관련 세미나 및 경제교육 등의 VOD도 제공한다. [기사제공 : 한국은행 정보자료실]

## 도서관메일링리스트 재 오픈

도서관메일링리스트([www.domeri.or.kr](http://www.domeri.or.kr))가 1월 3일(수)부터 회원가입을 받아 8일(월) 재 오픈 했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독자적인 도메인과 독립서버를 갖추어 서비스 인프라 환경 구축하고 원활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관메일링리스트는 도서관계의 쌍방향 의사소통 공간으로 관중과 계층에 관계없이 도서관인들



터 18일(목)까지 개최되어 전국 2,000명의 교사들이 지회와 지부별로 40개분과에 1년 동안의 실천 사례를 모아놓고 발표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기간 중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은 '학교도서관분과' 모임을 주관했는데, 약 100명의 교사들이 모여서 학교도서관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었다.

이번 재 오픈을 기념해 1월 27일(토)과 28일(일) 양 일간에 걸쳐 부산일대에서 모임도 가질 예정이다.

## 직지심체요절을 발견한 재불학자 박병선 박사,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을 처음 발견한 재불 학자 박병선(78) 박사가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주불 한국대사관은 1월 5일(금) 신년 하례식에서 박병선 박사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박병선 박사는 1970년대 직지심체요절을 처음 발굴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데 기여하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외규장각 의궤들을 발굴·목록화해 국내외에 외규장각 도서의 존재를 알려 반한 운동을 촉발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박 박사는 지난해 한불 수교 120주년을 맞아 프랑스 외교 고문서 발굴 작업을 통해 한불 관계 자료 정리에도 기여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도서관분과, 참교육실천사례발표대회 참여

제6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천사례발표대회가 강원도 원주 상지대학교에서 1월 16일(화)부

## 국립중앙박물관, 한글금속활자 자료집 발간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부는 소장 역사자료 조사 정리 및 총서 발간 사업의 일환으로 소장 금속활자 가운데 한글 금속활자를 정리해 “한글금속활자”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에는 한글 금속활자 큰자 232자, 작은자 520자 총 752자의 6면을 모두 촬영해 활자의 세부 모습을 상세히 담았다.

또한 활자의 고증작업을 통해 이들 활자가 언제, 어떤 책을 찍을 때 사용되었는지를 밝히고, 활자와 이들 활자로 찍은 책을 함께 제시하고 일부 활자는 비중과 금속 성분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수록했다.

이번 한글활자 조사·정리를 통해 15세기에 주도된 것으로 추정되는 활자가 확인됨으로써 기록으로만 존재하던 조선 전기 활자의 형태와 구조, 조판 방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앞으로도 소장 금속활자 자료를 연차적으로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

## 경향신문, 연중 기획시리즈 ‘책읽기 365’ 시작

---

경향신문이 2007년 들어 ‘책읽기 365’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 마음의 양식이 되는 책 한권을 소개하는 연중 기획시리즈 ‘책읽기 365’는 진지한 책읽기, 책읽는 사회풍토 조성을 통해 21세기 문화 입국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야심 찬 캠페인이다. 첫회로는 최정호 교수의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김지하 시인의 ‘서평 칼럼’을 실었다. 앞으로도 『인간의 조건』, 『소크라테스의 변명』 등 우리 사회의 지식인과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지적 양식을 제공해온 좋은 책들을 간결하고도 깊이있게 소개할 계획이다.

---

## 간행물윤리위원회, ‘책이 있는 풍경’ 사진전 개최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와 문화일보의 공동 주최로 2006년 12월 18일(월)부터 2007년 1월 12일(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책이 있는 풍경’ 사진전이 열렸다.

이번 사진전은 책을 읽고 있는 사람과 책 그 자체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통해 독서와 책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2007년을 ‘전 국민 책 읽는

해’로 정했다. 특히 어린 시절의 책 읽기가 일생을 살아가는 정신의 씨앗을 심는 일이라는 생각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첫번째로 만 7세의 아동들에게 양서로 선정된 도서를 보급하는 ‘BK07’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국외소식

---

### 미국 공공도서관, 고전과 인문과학 분야 도서 서가에서 퇴출

---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에밀리 디킨슨의 시집 같은 고전들이 미국 공공도서관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가 1월 2일(화) 보도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도서관들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책을 빼버리기 위해 최근 2년간 대출 실적을 검색한 결과 고전을 포함한 수천 권의 소설과 인문과학 서적들이 전혀 대출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세기 미국의 대표적 작가인 헤밍웨이의 소설과 하퍼 리의 폴리처상 수상 소설 『앵무새 죽이기』,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시인 에밀리 디킨슨의 시집, 그리고 헨리 애덤스의 『교육론』 같은 인문도서가 여기에 포함됐다.

워싱턴포스트지는 공공도서관이 반스앤노블스나 보더스와 같은 대형 서점 체인들처럼 독자들의 취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레슬리 버거 미국도서관협회 회장은 “과거 도서관들이 유익한 책을 중시한 반면 요즘 도서관은 사

람들이 많이 찾는 책을 갖추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추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다이언 크레시 알링턴 카운티 도서관장은 “공공도서관은 주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위해 양서를 구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

## 미국버클리대학 한국학센터, 다양한 한국학 연구 시작

---

미국버클리대학 한국학센터는 한국의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10만달러의 기금을 지원받아 2007년부터 3가지 한국학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첫 프로젝트는 동아시아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고서의 목록화 작업이다. 동아시아 도서관에서는 2년여 전부터 오용섭 교수를 특별 초청하여 분류작업을 해왔으며 목록화 작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초기 한국어 내지 한국학교 재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이 프로젝트를 실시할 클레어 유 교수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타커뮤니티와 비교 연구도 할 계획이다.

세번째 프로젝트는 신지원 교수가 조선시대 서적이나 자료가 어떻게 북미지역 도서관이나 박물관등에 유입·확산되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

## 미국 로스앤젤레스문화원 도서관, 재개관

---

미국 로스앤젤레스문화원 도서관이 2주간의 내부 공사를 끝내고 1월 2일(화) 재개관했다.

우선 안내 데스크의 위치를 변경해 도서관 사서가 문화원 리셉션 역할을 같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서가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울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대출과 반납에 느끼는 불편을 줄

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사용하던 공간을 강의실로 꾸며 한국어 강좌나 각종 문화교실이 열 수 있게 되었다.

문화원은 도서관 재개관에 맞춰 비디오 감상시설을 새로 설치해 도서관 안에서 비디오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 최신 잡지들을 추가로 입수해 도서관 이용자들이 한국 관련 정보를 보다 빨리 접할 수 있도록 했다.

---

## 미국 유에스 뉴스 & 월드 리포트, 올해의 유망 직종 발표 -도서관 사서, 유망직종에 선정-

---

미국 유에스 뉴스 & 월드리포트는 최근 ‘올해 미국의 유망직’의 리스트를 발표했다.

총 25개의 유망직을 선정했으며 그 가운데 사서가 선정되었다. 사서이외에도 의사, 김안사, 의료보조인, 공무원, 교육종사자, 경영컨설턴트, 성직자 등이 유망직종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가 직종 간 향후 전망성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처럼 보청기를 사용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늘어나면서 청각치료사가 유망직종으로 꼽혔다. 또한 25개 유망 직종 중 9개가 건강·의료 분야에서 선정되었다.

반면 “변호사나 광고회사 임원의 업무는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지루한 편”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대부분의 변호사는 TV에서처럼 비싼 양복을 입고 법정에 나가는 대신 연간 2000시간을 서류에 파묻혀 지낸다”며 유망직종에서 제외했다.

또한 한때 각광받던 웹사이트·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유망직종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

## 미국, 학생들의 정보취급능력에 대한 조사 발표

---

미국의 비영리 테스트 개발 기구인 Educational Testing Service(이하 : ETS)는 현대 학생이 대학이나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ICT 리터러시 스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예비 조사 결과 많은 학자들이 언급해 왔던 '대학생은 정보 기기를 잘 다루고 있지만, 콘텐츠의 취급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TS는 2001년부터 고등교육 기관이나 도서관과 함께 ICT 리터러시, 즉 '정보사회에 있어 활동하기 위해서 정보 과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목적으로 디지털 기술, 커뮤니케이션 툴,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를 개발해 오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6,300여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ICT 리터러시 평가 테스트 통해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눈에 띄는 결과로는 웹 사이트의 객관성을 올바르게 판정하는 것이 52%, 웹 사이트의 신뢰성(authoritativeness)을 올바르게 판정하는 것이 65%, 웹 사이트를 검색할 때에 복수의 검색어를 입력하는 것이 40%,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때에 무관한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50% 등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번 조사의 자료 수집은 63개 대학 등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협력 기관의 조사 기준이 다양해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ICT 리터러시 능력을 올바르게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로 앞으로 계속적인 데이터 수집과 정확한 측정 방법의 연구가 기대된다. 또한 이 조사를 바탕으로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 등의 향후의 대응도 주목된다. [출처 : [www.ets.org](http://www.ets.org)]

---

## 영국 재무성, 영국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리뷰 'Gowers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발표

---

영국 재무성(HM Treasury)은 2006년 12월 6일 경제 현황이나 정부의 정책을 보고하는 예산전 보고서(Pre-Budget Report)의 일부로서 Financial Times의 전편집장 가워즈(Andrew Gowers)에 위촉했던, 영국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리뷰 'Gowers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를 발표했다.

이번 리뷰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과 경제 환경의 변혁에 수반해 생기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요청의 양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영국정부의 의향이 반영됐다.

본 리뷰에서는 권리와 이용의 균형이 맞은 지적재산권 제도의 구축, 지적재산권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의 모색,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와 디지털 환경의 관계 및 공정사용(fair use) 조항의 타당성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현 상황에 맞는 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했지만 더욱 많은 영역에서 검토를 거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언에서는 조사 목적을 위한 복제에 대한 저작권의 예외 규정의 명확화, 도서관이 자료 보존을 위해서 행하는 매체 변환의 확대, 디지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의 강화 등을 언급했다. [출처 : [www.hm-treasury.gov.uk/media/583/91/pbr06\\_gowers\\_report\\_755.pdf](http://www.hm-treasury.gov.uk/media/583/91/pbr06_gowers_report_755.pdf)]

---

## 호주멜버른국립도서관, 독신자를 위한 미팅 행사 마련

---

호주멜버른국립도서관은 연말을 맞아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6년 12월 19일 처음으로 외로운 독신자들을 위한 미팅

행사를 개최했다.

도서관이 주최한 이번 미팅에 참가한 52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대화의 소재로 삼고 싶은 책을 들고와 참가한 이성들과 돌아가면서 5분씩 자신이 가져온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참가자 52명 가운데 13명의 커플이 연결돼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이날 미팅에서는 헬렌 필딩의 『브리짓 존스의 일기』와 더글러스 애덤스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나 일본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참가자들에게 인기 있었다.

---

## 제9회 아시아 디지털도서관 국제회의 개최

---

제9회 아시아 디지털도서관 국제회의(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sian Digital Libraries : ICADL2006)가 2006년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세계 각국에서 19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 도쿄대학에서 열렸다.

테마별 세션에서는 포스터 세션을 포함하여 66건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발표된 내용에는 디지털도서관·디지털 아카이브를 축으로 정보 추출, 정보 검색, 메타데이터, 아키텍처(architecture), 정보의 체계화 등 도서관 정보학계와 데이터 공학계를 포함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일본의 디지털도서관·디지털 아카이브에 관한 동향과 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국립도서관의 동향에 관한 특별 세션도 마련되었다.

차기회의는 2007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다. [출처 : [www.icadl.org](http://www.icadl.org)]

---

## 일본, 저작권법 개정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

---

일본은 저작권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했다.

2006년 현재의 저작권법에서는 시각장애자 전용

녹음도서는 대출 목적으로만 작성이 인정되었으나(제37조3항) 개정안에서는 공중자동송신(인터넷을 통한 송신)을 실시하기 위해 녹음도서를 제작해(개정안 제37조3항), 출처를 명시한 다음(개정안 제48조1항2호), 인터넷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개정안 제37조3항).

---

## 일본, ‘인터넷상의 위법 정보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 발표

---

일본 (사)전기통신사업자협회, (사)텔레콤서비스협회, (사)일본인터넷프로바이더협회, (사)일본케이블TV연맹 4개 단체는 총무성의 지원을 받아 인터넷상의 위법·유해 정보에 대한 자주적 대응책을 정리해 2006년 11월 ‘인터넷상의 위법 정보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일본 총무성은 2006년 8월 인터넷상의 위법·유해 정보에 대해, 행정의 지원을 전제로 한 프로바이더나 전자계시판의 관리자, 이용자등에 의한 자주적인 대응을 촉진하는 제언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위법한 정보가 유통되었을 경우, 발신자와 수신자에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정보 유통의 장소를 제공하는 전자계시판의 관리자나 웹 서버의 관리자 또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전자계시판 관리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항상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없고, 특정의 정보의 유통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구체적 사례에 입각해서 위법 정보에 대한 기준을 정해 신속·정확하게 송신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발신자·수신자 측의 대응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도서관도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형태로 인터넷상의 정보 유통에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출처 : [www.telesa.or.jp/consortium/lllegal\\_info/20061127.htm](http://www.telesa.or.jp/consortium/lllegal_info/20061127.htm)]

## 인사동정

### 제16대 문용주 국회도서관장 취임



임채정 국회의장은 12월 22일(금) 문용주(文庸柱·55) 군장대학교 교수를 국회도서관장에 임명했다.

문 관장은 전북 군산출신으로 전북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전라북도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역임했다.

## 변경 ·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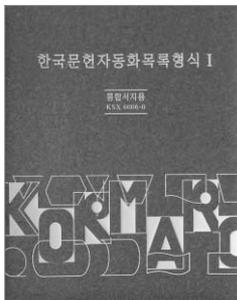
### 전라북도 '학생종합회관', '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 변경

전라북도조례 제3238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2006년 12월 28일부터 '학생종합회관'이 '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돼 전라북도 내 학생종합회관 5개관의 명칭을 아래와 같이 변경했다.

변경 전	변경 후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군산학생종합회관	군산교육문화회관
마한학생종합회관	마한교육문화회관
마한학생종합회관 익산분관	마한교육문화회관 익산분관
남원학생종합회관	남원교육문화회관

##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I, II (통합서지용)

2005.12 국가표준(KS X 6006-0) 제정  
국립중앙도서관 편



바인더 형식/1350쪽  
ISBN 89-7678-098-1 (Part I)  
89-7678-099-X (Part II)  
89-7678-100-7 (전2권)  
정가 145,000원(I, II 세트)  
회원보급가 116,000원

### 목차

#### (제1권)

1. 설계원칙
2.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서지데이터용
3. 리더
4. 디렉토리
5. 00X 제어필드
6. 01X-09X 숫자와 부호필드

#### (제2권)

7. X00-X30 표목 필드
8. 1XX 기본표목

9. 20X-24X 표제와 표제관련필드
10. 250-28X 판차, 발행 등 필드
11. 3XX 형태사항 등
12. 4XX 총서사항
13. 5XX 주기사항
14. 6XX 주제명부출표목
15. 70X-75X 부출표목
16. 76X-78X 연관저록
17. 80X-830 총서부출표목
18. 841-88X 소장, 변형문자 등
19. 9XX 로컬에서 정의한 필드

### 문의

- **내용에 대한 문의** :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담당관실 02) 590-0563
- **보급처** :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 02) 535-4868